

결핵관리를 위한 인력개발

—방법론적 논의—

맹 광 호 /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1. 머리말

어떤 종류의 보건사업이든,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몇 가지 구비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사업 목표가 타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런 사업 목표에 합당한 계획 수립과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그리고 사업 수행을 위한 유능한 인력과 재정 확보 능력 등이 그것이다.

특히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의 확보와 이들의 전문성 유지 및 향상은 보건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 내용에 따른 부문별, 기능별 적정인력의 확보와 이들 인력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한 제반 인력 개발 노력이 다른 어떤 일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다.

이 일은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결핵에 대한 면역 인구의 확대와 결핵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 효율성 제고라는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

라 국가 결핵관리 사업도, 말하자면 결핵관리 관련 여러 보건 인력을 얼마나 적절히 확보하고 있는지와 이들 결핵관련 인력들이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결핵관리를 위한 이런 인력개발 노력이 다른 어떤 보건 사업들에서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결핵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어떤 보건 사업 대상 질병보다 중요한 보건 문제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결핵 유병률이 아직도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 다른 개발도상국들보다 높다는 점, 아직도 결핵 사망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순위 10위안에 드는 유일한 전염성 질환이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인식 하에, 우리나라 결핵관리 관련 인력 현황과 이들에 대한 교육 훈련 실태 및 문제점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결핵관리의 효과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력 개발 노력에 대한 몇가지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단, 여기서 제시되는 결핵관리 관련 인력 개발 방법들은 다분히 결핵관리 당위에 바탕을 둔 이론적 방법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그것은, 현실에 바탕을 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의 제시를 위해서는 우선 단계적으로 우리나라 결핵관리 관련 인력 현황과 이들의 업무 내용,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 훈련 내용에 대한 분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무엇보다 결핵관리를 위한 여러 측면의 활동과 이에 따른 수요 예측 연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일들이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 결핵관리 관련 인력 현황과 교육 훈련의 문제

발전적인 인력개발 계획은 현행 인력 양성 과정에서부터 인력 확보 현황, 그리고 확보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과정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이 일을 통해서 현행 인력개발 과정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예상되는 미래의 문제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인력개발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결핵관리 관련 인력양성 과정이나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인력의 양적, 질적 수준의 적절성,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 훈련 과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들에 대한 분석적 연구가 별로 이루어진 바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 결핵관리 관련 인력 양성기관들에서의 결핵관련 교육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과, 특히 결핵 전문 의사 인력의 부족으로 시·도

아직도 결핵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순위 10위안에 드는 유일한 전염성 질환이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수준의 결핵관리의사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결핵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단위인 일선 보건소 결핵관리 요원들의 업무 독립성이나 전문성 문제, 그리고 교육훈련 기회의 부족 등 여러가지 문제가 더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다.

현재로서는 결핵관리 업무를 수행할 만한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기보다 이들을 확보할 만한 제도상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능력있는 결핵관리의사 내지는 결핵 진료의사를 확보하지 않고는 다른 결핵 예방 활동을 위한 기술 요원이나 행정 요원의 확보내지는 교육 훈련도 결코 쉽게 해결될 수가 없다고 볼 때, 우리나라 현행 결핵관리 관련 인력 현황은 하루 빨리 시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다.

한편, 결핵관리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경우, 국립보건원 훈련부와 결핵협회 산하 결핵연구원에서 이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이들 훈련기관의 형편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는 인원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교육훈련 내용이나 방법 또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특히, 정부조직 산하 결핵관리 관련 인력들의 경우 국립보건원 훈련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에만 진급과 관련이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들 인력에 대한 다양한 교육 훈련 기회 개발이나 운영도 어려운 실정이다.

3 우리나라 결핵관리 관련 인력 개발에 관한 방법론적 과제

우리나라 국가결핵 관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나라 결핵 유병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일이다. 이를 위해 신환 발생을 억제하는 일과 환자치료를 높이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BCG 접종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접종과 둘째, 증상자나 환자 동거 가족 등 소위 결핵감염 고위험군들에 대한 조직적, 체계적 검진, 그리고 셋째는 무엇보다 환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결핵관리의 목표가 인력의 양성이나 확보,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 훈련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력개발의 내용이나 방법을 이같은 목표

에 따라 새롭게 설정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실제로, 결핵관리 관련 인력 개발의 문제는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으나 국가결핵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력개발 계획을 세우는 방법도 가능하며, 여기서도 일단 이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첫째, 능력있는 결핵관리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의과대학에서의 결핵관련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결핵관련 학회가 그 내용을 만들어 각 대학에서 교육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감염성 질환 가운데 결핵이 차지하는 보건학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 일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결핵에 대한 의과대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이나 교수들에 대한 연구비 마련도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방사선 기사나 병리기사 양성 교육과정에도 이런 일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이다.

둘째, 정부 결핵관리 사업 조직에서 필요한 결핵관리의사나 전문 진료의사를 충실히 확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 인력에 대한 직급상, 급여상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업무 규정이나 활동 내용의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셋째, 결핵관리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선진화다. 특히 결핵관리의

사나 진료의사들에 대한 교육 환경이나 내용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적 편이나 지시적 내용 교육보다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교육·훈련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결핵협회의 교육 훈련 기능을 전문화하고 결핵관련 학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치료효과가 높은 결핵환자 치료 프로토콜을 연구, 개발하고 치료결과를 평가하는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일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넷째, 결핵감염 위험 집단 규정이나 BCG 접종 효과관정, 또는 결핵치료 이행 등과 관련한 대규모 역학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런 연구 인력을 양성 또는 지원해야 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결핵 발생 예방이나 치료 효율 증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타 결핵관리 요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의 경우도 교육환경이나 내용 개선은 물론 우선 교육, 훈련 기회의 폭을 좀 더 넓혀야 한다. 국립보건의 교육 기회는 물론, 다른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대한결핵협회 등의 교육 훈련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4. 맺는말

1965년도에 5.1% 수준이던 우리나라 결핵유병률이 1990년대는 1.8% 수준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결핵실태 조사에서는

1.0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우리나라 결핵관리사업이 크게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유병률은 가령 1993년도 일본의 0.06%에 비하면 무려 23배나 되는 상태로써 아직도 우리의 결핵관리 노력은 멈출 수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결핵유병률이 1% 수준에 이르러서는 이를 더 떨어뜨리기 위한 결핵관리가 지금보다 더욱 힘들어지고, 따라서 이제부터는 결핵관리를 위한 사업조직은 물론 인력을 포함한 자원관리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결핵관리의 주체인 결핵관리 관련 인력에 대한 새로운 개발 계획은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원칙적으로 이런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결핵관리 인력 개발의 중요성과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시도는 현황에 대한 분석적 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문제도출, 그리고 관련 내용의 변화 추세를 고려한 미래 예측 등으로 성취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자료 부족과 시간적 제약으로 충분한 현황분석 과정이 제외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현실적 대안보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당위적 활동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몇가지 방법론적 논의만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